

■ 대안학교는 어떤 곳? / 영광 성지송학중 가 보니

자립심 키우며 즐거운 공부 내 아이 '철 든 학생' 됐어요



3학년 학생들이 '깔깔대사회'에 선보인 대나무춤을 연습하고 있다. 일종의 학예회인 '깔깔대사회'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준비·진행을 도맡는다.

촉 처진 어깨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이 학원 자립심을 옮겨다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일상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며 안쓰러워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것을 우려해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분명 뭔가 교육이 잘못돼 가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안을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섬진강 사인' 김용택씨가 교사로 재직 중인 시골의 초등학교에 최근 7명의 도시 학생이 전학왔다는 것은 시시하든 바가 크다. 만약 아이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조금 느리더라도 즐거운 학생생활을 보내길 원한다면 대안학교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

최근 교육부가 인가 규정을 대폭 완화한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대안학교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영광 군서면 송학리에 위치한 성지송학중학교. 지난 2002년 중등과정으로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이 학교에 들어서자 밝고 활기찬 표정의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3학년 학생 19명은 강당에서 '대나무춤'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다음 주에 있을 '깔깔대사회'에 선보이기 위해서다. '깔깔대사회'는 일종의 학예회로, 학기마다 2번씩 치르는 교내 행사다. 부모님을 초청해 학생들의 장기를 보여준다. 지난주 기말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모두 진학할 학교가 결정돼 어느 때보다 느긋하다.

3학년 학생들은 ▲대안학교 13명 ▲인문계 고교 4명 ▲도예고 1명 ▲예술고 1명 등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대안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모두 고등학교도 대안학교로 진학하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서울의 인문계 학교로 갈 예정인 이한별(16·서울시 마포구)군은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대안학교보다는 일반학교를 선택했다"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3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가) 걱정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생 62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자립. 자율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다. 학생들 스스로 꾸리는 학생회는 이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여럿한 단체다. 학교 내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최근 2번의 토론회와 합동유세를 거친 선거를 통해 차기 집행부를 꾸렸다.



성지송학중 1학년들이 도서실에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토론식 수업에 익숙해 발표에 적극적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문반, 방송반, 영상미디어반, 기원반, 축구반 등 14개의 동아리는 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부터 학생들이 즐겨 찾는 가장 큰 놀이터다. 집이 어디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체없이 "여기죠"라고 답하는 3학년 학생 김도희(16·서울시 도봉구)양에게 학교는 더 이상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듯 했다.

학교에 상근하는 교사는 9명, 각 학년 당 두 명의 담임이 배치되고, 이들은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다. 상근 교사들은 국·영·수 등 정규 과목을, 외부 강사 8명은 영어회화, 도자기 공예, 바이올린 등 특색화 과목을 맡는다.

성지송학중학교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현장활동이다. 4박5일 간의 지리산 중주, 9박10일 간의 해외 이동수업, 소록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현장학습이 학기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채롭게 구성된다. 수업료는 일반 중학교와 같이 무료이지만 기숙사비가 월 30만원, 체험학습비 연 25만원, 해외 이동수업비 등에 연 120여만원 등이 추가로 든다.

대안학교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수도권 출신 학생이 약 50%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광주에서도 5명 가량이 입학할 예정이다. 특히 영광읍내 학생 3명이 입학하는 것은 인근에서부터 이상 대안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만큼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저변확대라는 예기다.

하지만 무태고제 교육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호석(35) 교사는 "우선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아닌지, 학생 및 교사 등 전체적인 분위기, 커리큘럼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전국의 대안학교들을 직접 둘러보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안학교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130여곳. 이 중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28곳 정도다.(<표 참조> 광주·전남의 경우 중등과정 2곳, 고등과정 3곳 등 모두 5곳이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리산 중주 등 다채로운 현장학습 학생 의견 적극 반영 프로그램 구성 학력 인정따라 도시권 관심 높아져

인가 받은 대안학교 현황

고등과정	지역	학교명	지정년도	2006년 9월 현재			
				모집인원	학생수		
전남	광주	동명고	1998년	40	17		
	영광	영산성지고	1998년	40	17		
	담양	한빛고	1998년	75	17		
	부안	지주초고	2002년	30	9		
	대구	달구별고	2003년	40	15		
	인천	산마을고	2000년	60	9		
	경기	화성	두레자연고	1999년	40	16	
		수원	경기대명고	2002년	40	18	
		성남	이우고	2003년	80	27	
		안성	한겨레학교	2006년	60	9	
강원		춘천	전인고	2005년	20	8	
충북		청원	양암고	1998년	40	16	
충남		천안	한마고	2003년	40	14	
		서천	공동체비전고	2003년	40	10	
		전북	완주	세인고	1999년	60	18
		무주	푸른꿈고	1999년	25	10	
	경북	경주	경주화랑고	1998년	40	14	
	충청	충청	원경고	1998년	40	17	
	합천	지리산고	2004년	20	9		
	중등과정	전남	영광	성지송학중	2002년	20	10
		보성	용정중	2003년	24	10	
		용인	한산중	2003년	40	10	
경기		화성	두레자연중	2003년	20	9	
성남		이우중	2003년	60	11		
안성		한겨레중	2006년	60	8		
전북		김제	지평선중	2003년	40	11	
전남		영광	성지송학중	2002년	20	10	
보성		용정중	2003년	24	10		
용인		한산중	2003년	40	10		
경기	화성	두레자연중	2003년	20	9		
성남	이우중	2003년	60	11			
안성	한겨레중	2006년	60	8			
전북	김제	지평선중	2003년	40	11		

(교육부 제공)

한길컴퓨터 정비전산학원
보이십니까? 전문학원의 수준차이...
자격증 100% 취득가능 ■ 취업 및 창업 완벽지원
매월초 개강!

교육과정
■ 정보처리기사
■ 정보통신기술사
■ PC정비사
■ 홈네트워크관리사
■ CCNA, CCDA, A+, N+
■ CCDP, SCJP, CCNP

특징
■ 광주·전남 최초 실무무 주 전문학원
■ 전문화·차별화·특성화 된 교육시스템
■ 재직근로자 무료교육
■ 신채근로자 무료교육
■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

유동사거리(대경빌딩5층)
문의 062)522-9119
http://www.hankilcom.co.kr

www.lawbig.co.kr

채무/압류/추심 해방!!
동산경매/신용불량 해방!!
빚 때문에 고동받고 계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파산면책/개인회생 사건만을 전담하는 광주·전남 최대의 희망법무사 사무소에서 채무를 탕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원 1577-8682, 011-625-6097
광주·전남 어디서나 1577법률민선로

참고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영상자료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2)372-4585

급부동산신선실링
☎(02)261-8949

금천공인중개사
☎(02)011-9600-4563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강호를 베푸는 전문가들의 자선선실링명가
광주·전남 토지·건물 구입
Tel:062)973-9174, 016-757-8800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주 무리현에서 50m 지점, www.8568949.co.kr)

(주)옥성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법원경매리플링)

▶ 아파트
▶ 주택
▶ 상업
▶ 기타